

민주 이재명 2기 당직 인선... “광주·전남은 없다”

사무총장·정책위의장 2명 유임
전략위 천준호·비서실장 이해식
최고위원 낙선... 호남정치 후퇴
지역 소통창구 역할 부재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지역 정치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2기 체제'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3선의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을 임명했다.

당 정책위의장에는 전북 출신인 3선의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유임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이미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인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데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에 당무를 잘 수행한 점이 평가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과 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이재명 대표 1기 체제' 마지막 사무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회 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장과 정책위 의장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민형배 의원이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 자리에는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 갑·재선)이 새로 임명됐다.

천 의원은 '1기 체제'에서 이 대표 비서

실장을 맡는 등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은 진명(진이재명)계 인사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당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2기 지도부'를 함께할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동구청장

출신의 이해식(서울 강동을·재선)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의 후임 수석대변인은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지낸 조승래(대전 유성갑·3선) 의원이 임명됐다.

8·18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

명 모두 수도권 의원들이 차지한 가운데, 당 대표 임명직에 광주·전남지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유일한 호남지역 최고위원 후보였던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 서삼석·송갑석에 이은 3번째 지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었지만, 당 지도부 자격 진출에 다시 실패했다.

당내에서 호남 정치력의 급속한 후퇴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이재명 2기 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 입장에선, 지역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외에는 당 지도부와 소통 창구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지역을 대표해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재선 의원이나 3선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준석 “민주 지도부 6명 중 5명이 영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 “놀라는 것은 선출된 인사 6명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다섯 선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생각해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 해야겠다”며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이 밝힌 '영남 라인업' 5인은 이재명 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김병주·이

언주 최고위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년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동진정책'에 새 지도부의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전현희 최고위원은 경남 통영,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북 예천, 이언주 최고위원은 부산이 고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은 서울 출생이지만 선친이 경남 사천 출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첫 여야 당대표 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동한다. 양측 취임 후 열리는 첫 여야 당대표 회담이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어가고 있는 데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대표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25일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체적 의제와 실무진 배석 여부에 대해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 지원 범위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선별지원과 차등지원 공히 이 대표가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의제에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9일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 민생·대여투쟁 ‘투트랙’

첫 최고위... 먹사니즘 강조
위원들 “강한 투쟁”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19일 민생 챙기기와 대여 투쟁이란 투트랙 전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임 성공 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일 본제국 천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맘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기

본사회비전, 에너지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며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라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강한 투쟁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울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존기관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힌 건 국민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피로도까지 걱정하더니 맘까지 배려하는 정부,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의대 신설, 지역사회 의견 수렴 필수”

조규홍·이주호 등 청문회서 발언
김문수 “공모에 순천대 참여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있어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전남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역시 “교육부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장상운 사회수석 비서관도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이 있어야 검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의견 수렴의 주체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호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남도가 주체가 될지, 아니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상호 협의해서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장상운 비서관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기에는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들은 의대 신설을 위

해서는 전남지역의 의견이 통합된 형태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독자적인 의대 신설 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모 절차가 가장 신속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인 만큼, 순천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공동의대 및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분산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의대 유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의대 유치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